

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

Issue 7, 2021 Q1

본 보고서(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는 다양한 출처에 공개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 퇴직연금 사업자, 그리고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음. 보고서 하단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정확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서술하였음.

퇴직연금 시장 (2020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 분석 자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DB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95.5%, 4.5%로 대부분의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은행 사업자의 원리금비보장형 운용 자산 감소에 따라(-9,960억), 2019년 대비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감소하였음.
- 업권별 DB 운용 규모를 보면 은행, 생명보험, 증권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음.
- 전체 시장의 60% 이상이 DB 자산이나, 기업들의 DC도입과 IRP 자산 증가 (IRP 비중 2019년 11.6% → 2020년말 13.6%) 등으로, DB자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DC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82.6%, 17.4%로 대부분의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DB와 반대로 2019년 대비 모든 업권에서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투자 비중 또한 상승(2019년 16.4% → 2020년 17.4%)하였음.
- 업권별 운용 규모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은행이 전체 DC자산의 2/3 이상 운용)이나, 2019년 대비 은행의 자산비중은 0.7%p 감소한 반면, 증권은 1.0%p 증가하였음.
- 증권 DC 자산 중 원리금비보장형 비중은 약 48.7%로, 타 업권 대비 원리금비보장 상품 투자가 많음.

Figure 01. 퇴직연금 시장 요약

(단위: 10억원, %)

운용 방법	자산 규모			총 합	비중
	DB	DC	IRP		
원리금보장형	146,949	52,847	25,235	225,031	89.2%
원리금비보장형	6,982	11,130	9,171	27,283	10.8%
총 합	153,931	63,977	34,405	252,313	100%
비중	61.0%	25.4%	13.6%	100%	

DB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60,904	2,990	63,894	41.5%
증권	30,860	2,747	33,607	21.8%
생명보험	44,038	1,214	45,252	29.4%
화재보험	11,147	31	11,178	7.3%
총 합	146,949	6,982	153,931	100%
비중	95.5%	4.5%	100%	

DC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38,265	4,422	42,687	66.7%
증권	5,382	5,118	10,500	16.4%
생명보험	7,668	1,466	9,134	14.3%
화재보험	1,532	124	1,656	2.6%
총 합	52,847	11,130	63,977	100%
비중	82.6%	17.4%	100%	

퇴직연금 사업자 – DB (2020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 분석 자료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증권) DB 및 DC 각각에 대한 운용관리 자산규모 상위 3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거 수익률 및 자산규모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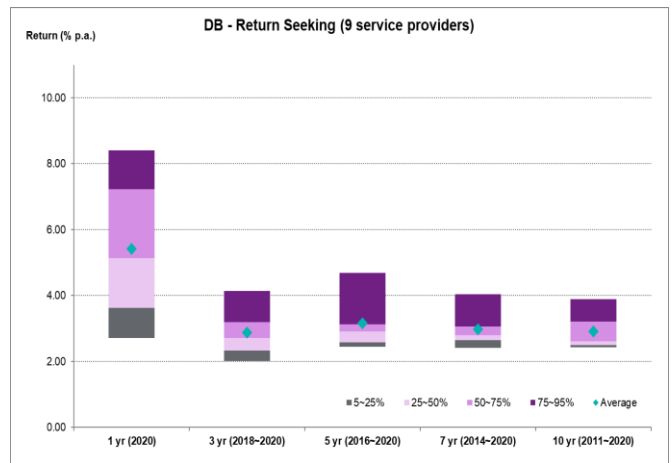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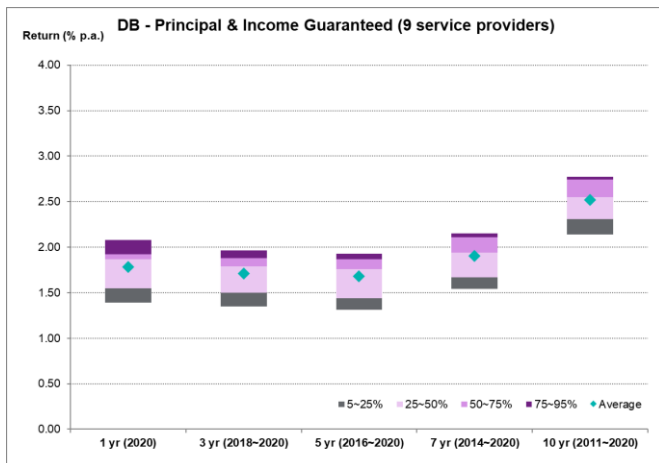
- 최근 제공 이율 상승으로 9개 사업자 평균 1년 수익률이 3년, 5년 수익률을 상회하는 추세 보임.
- 자사 원리금보장형 보험 판매가 가능한 보험업 및 보장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ELB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증권업 사업자가 단기 예금 위주로 판매하는 은행 대비 30~50bp 높은 수익률을 보임.
- 삼성생명의 적립금 규모는 2019년 대비 39,970억 증가하여 전체 사업자 중 DB 원리금보장형 자산 운용규모가 가장 큼. 단, 계열사 자산을 제외하면 은행권 사업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연중 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의 1년 수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 2020년 보험업 상위 3개 사업자에 신규 진입한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 대비 단기 수익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에서 원리금보장형 자산으로 이전 투자됨에 따라, 은행업 사업자의 원리금비보장형 자산 규모가 감소하였음. 신한은행의 감소폭이 7,10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하나은행(-1,900억원), IBK기업은행(-400억원) 순으로 나타남.

Figure 02. DB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1년 (2020)	3년 ('18-'20)	5년 ('16-'20)	7년 ('14-'20)	10년 ('11-'20)		1년 (2020)	3년 ('18-'20)	5년 ('16-'20)	7년 ('14-'20)	10년 ('11-'20)
신한은행	10,946	1.6	1.4	1.4	1.6	2.3	1,047	4.2	3.0	3.0	2.6	2.5
하나은행	9,129	1.5	1.5	1.4	1.7	2.3	595	3.0	2.3	2.4	2.4	2.5
IBK기업은행	8,733	1.3	1.3	1.3	1.5	2.1	165	6.5	2.7	2.6	2.7	2.6
현대차증권	12,291	2.1	2.0	1.9	2.1	2.8	393	5.1	1.9	2.9	3.1	3.2
미래에셋대우	5,257	1.9	1.9	1.9	2.1	2.8	795	3.6	2.2	2.5	2.4	2.4
한국투자증권	4,011	1.9	1.9	1.9	2.1	2.7	521	7.2	3.6	3.1	2.8	3.7
삼성생명	27,368	1.9	1.8	1.8	1.9	2.4	475	7.6	4.5	5.3	4.6	4.0
교보생명	5,184	1.8	1.7	1.7	1.9	2.6	465	9.0	3.2	3.7	3.2	2.6
미래에셋생명	3,702	2.1	2.0	2.0	2.2	2.7	244	2.5	2.5	2.9	3.1	2.7



퇴직연금 사업자 – DC (2020년 12월말 기준)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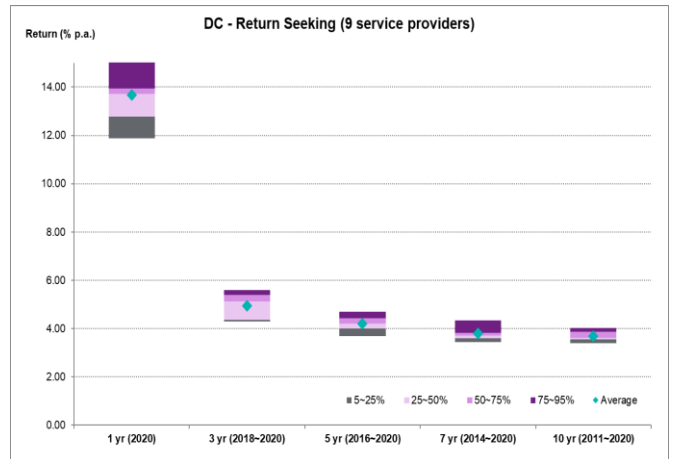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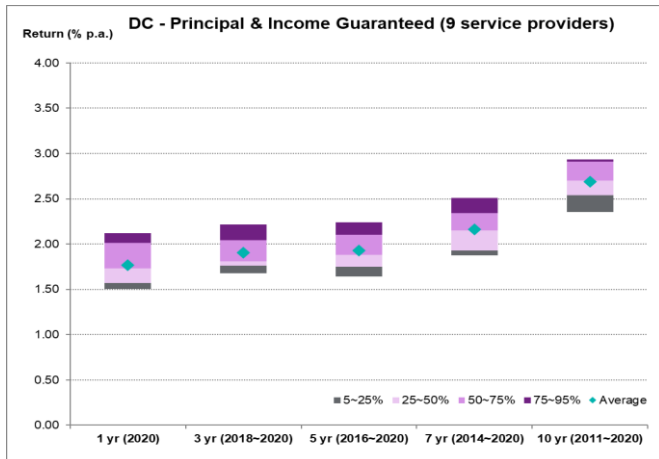
- 9개 사업자 모두 1년 수익률이 2019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은 은행, 보험 대비 증권업 사업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저축은행 예금/적금 상품 적립금 잔액의 증가세는 가파르나, 2020년 연중 제공 이율이 하락하면서 저축은행 상품 편입에 따른 단기 수익률 개선 효과가 다소 희석됨.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의 1년 DC형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이 은행업권 수익률을 하회하는 패턴을 보임.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연중 시장 회복에 따라, 9개 사업자 모두 1년 수익률이 2019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4.0~10.2%p에 이름.
- 증권사의 경우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자산 금액보다 크거나 비슷한 수준의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음. 연중 수익률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업권, 사업자별 원리금보장형/원리금비보장형 자산 배분 패턴은 종전과 유사함.
- DB와 달리 장/단기 수익률에서 업권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Figure 02. DC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1년 (2020)	3년 (‘18-’20)	5년 (‘16-’20)	7년 (‘14-’20)	10년 (‘11-’20)		1년 (2020)	3년 (‘18-’20)	5년 (‘16-’20)	7년 (‘14-’20)	10년 (‘11-’20)
KB국민은행	7,912	1.6	1.7	1.7	1.9	2.5	1,112	11.4	4.3	3.7	3.6	3.6
신한은행	7,276	1.7	1.8	1.8	2.0	2.6	1,249	12.8	5.2	4.4	3.8	3.6
IBK기업은행	7,554	1.6	1.7	1.6	1.9	2.5	396	16.1	5.1	4.4	3.8	3.4
미래에셋대우	1,958	1.5	1.8	1.9	2.2	2.7	2,499	13.4	5.5	4.7	4.2	3.6
한국투자증권	861	1.8	2.0	2.1	2.4	2.9	755	13.7	4.4	3.7	3.4	3.8
삼성증권	709	1.5	1.8	1.9	1.8	2.3	802	12.6	4.3	4.0	3.6	3.4
삼성생명	3,919	2.1	2.1	2.1	2.3	2.8	619	13.7	4.7	4.1	3.7	3.9
교보생명	1,785	2.0	2.0	2.1	2.3	2.9	468	15.4	5.4	4.2	3.7	4.1
미래에셋생명	720	2.2	2.3	2.3	2.6	2.9	255	14.0	5.7	4.7	4.4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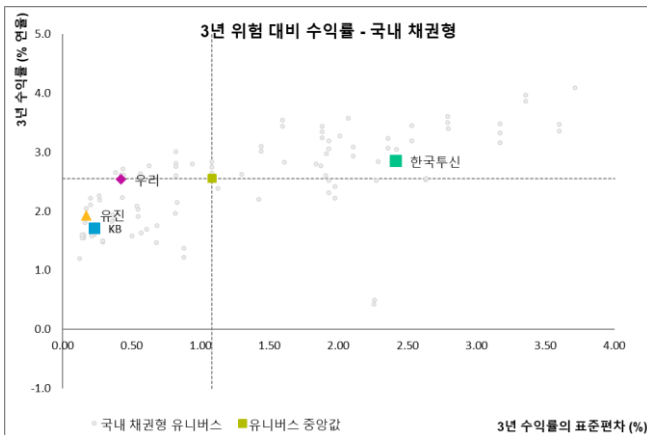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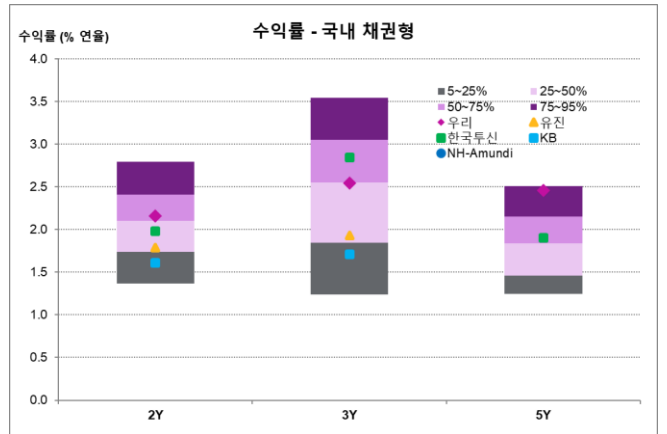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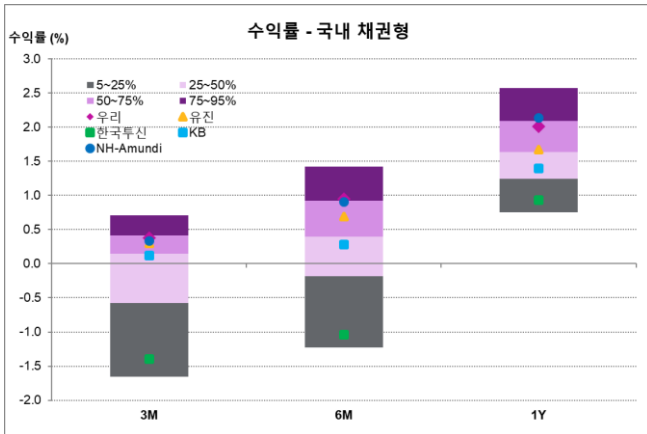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채권형 (2020년 12월말 기준)

Figure 04. 퇴직연금 – 국내 채권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							
상위 5%	56	0.70	1.42	2.57	2.79	3.54	2.51
상위 25%	16	0.42	0.92	2.09	2.41	3.05	2.15
중앙값	2	0.14	0.39	1.64	2.10	2.55	1.83
하위 25%	0.1	-0.58	-0.19	1.25	1.74	1.85	1.46
하위 5%	0.0	-1.66	-1.23	0.75	1.37	1.24	1.25
총 데이터의 수(개)	228	218	203	170	127	103	54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우리하이플러스채권증권투자자산탁 1(채권)ClassC-P	403	0.38	0.95	2.01	2.16	2.54	2.46
유진챔피언단기채증권투자자산탁(채권) ClassC-P2	273	0.30	0.69	1.67	1.79	1.93	-
한국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자산탁 1(국공채)(C)	246	-1.40	-1.04	0.93	1.98	2.84	1.90
KB스타단기국공채증권투자자산탁(채권)C-퇴직연금 클래스	124	0.12	0.28	1.39	1.61	1.71	-
NH-Amundi2년만기매칭증권투자자산탁(채권)ClassC-P2(퇴직연금)	94	0.33	0.90	2.13	-	-	-



퇴직연금 펀드 분석 자료는, 한국펀드평가에서 제공하는 국내 채권형, 채권혼합형(채권 비중 60% 이상) 및 주식형 펀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펀드 유형

- 2020년 하반기에 5개의 펀드가 신규 출시되면서 2020년 말에는 국내채권형 펀드의 개수가 228개로 증가함.
- 2020년 하반기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상반기에 비해 평균 수익률이 다소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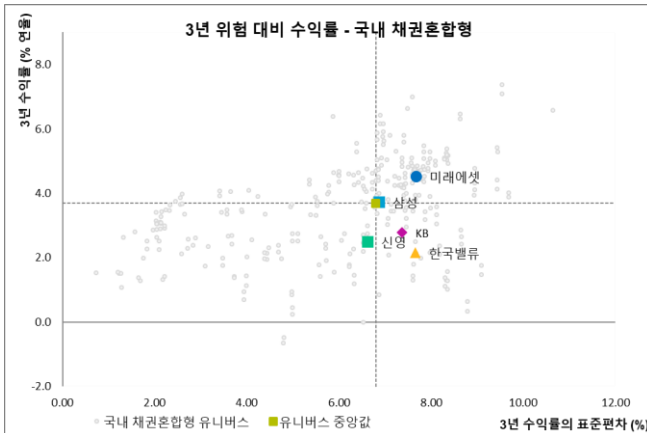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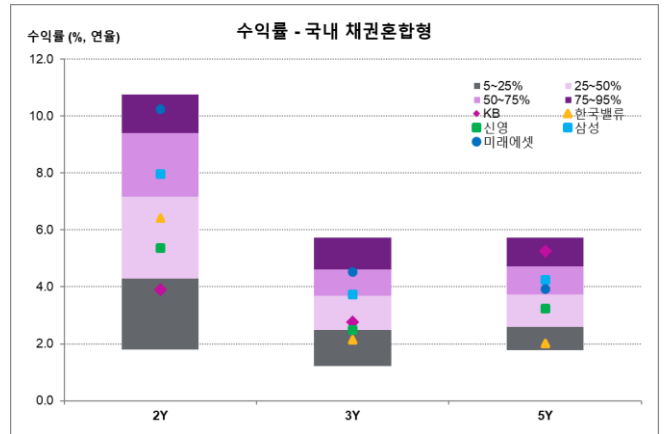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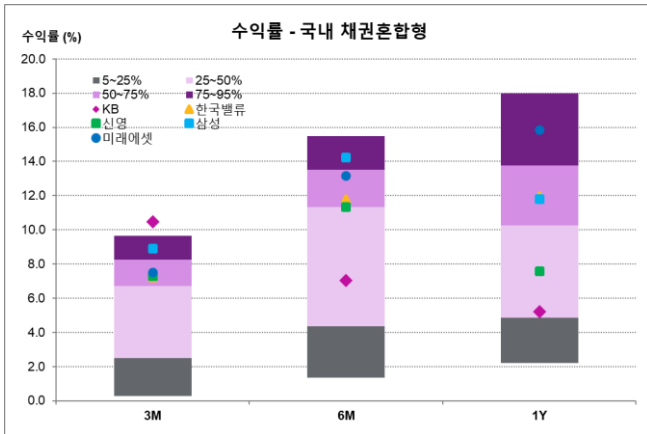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2020년 2분기 말 4위였던 미래에셋 솔로몬 장기국공채펀드가 KB스타단기국공채펀드에 자리를 내어줌.
- 상위 5개 펀드 자산규모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2개의 펀드가 단기채 또는 단기국공채 펀드임.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채권혼합형 (2020년 12월말 기준)

Figure 05. 퇴직연금 - 국내 채권혼합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							
상위 5%	37	9.64	15.49	17.98	10.75	5.74	5.73
상위 25%	5	8.27	13.51	13.76	9.41	4.61	4.71
중앙값	1	6.73	11.32	10.25	7.16	3.69	3.74
하위 25%	0.2	2.49	4.37	4.86	4.29	2.49	2.59
하위 5%	0.0	0.29	1.33	2.21	1.79	1.22	1.78
총 데이터의 수(개)	406	399	381	363	346	307	193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단위: 10억)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KB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	1,142	10.49	7.03	5.22	3.90	2.77	5.25
한국밸류10년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C)	496	7.20	11.80	11.98	6.41	2.14	2.01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형	478	7.28	11.34	7.57	5.37	2.48	3.24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C	275	8.91	14.24	11.79	7.95	3.72	4.25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종류C	189	7.52	13.15	15.84	10.23	4.52	3.93



펀드 유형

- 2020년 하반기 국내주식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채권혼합형 펀드들도 두자릿수의 수익률 (중앙값 기준)을 기록함.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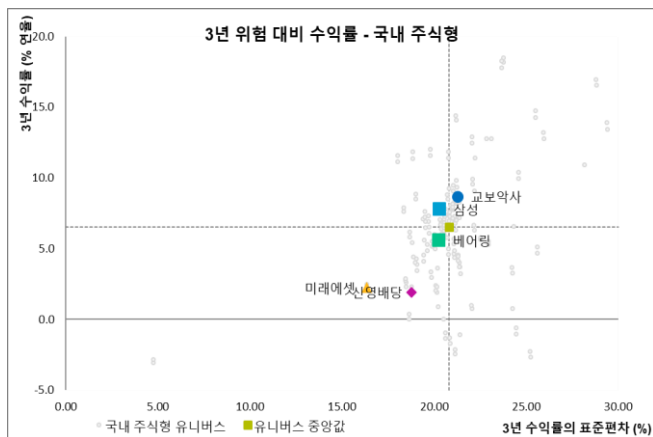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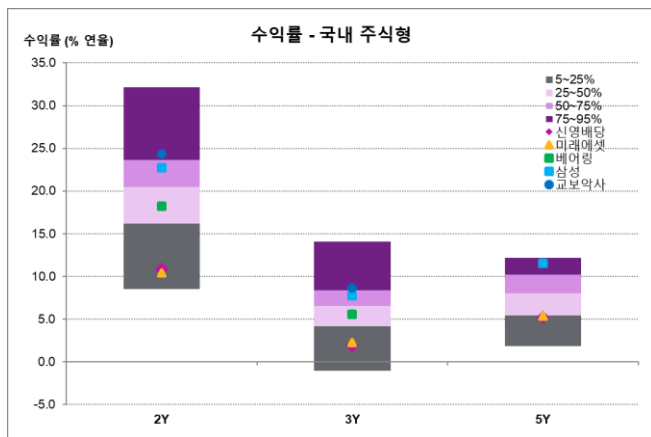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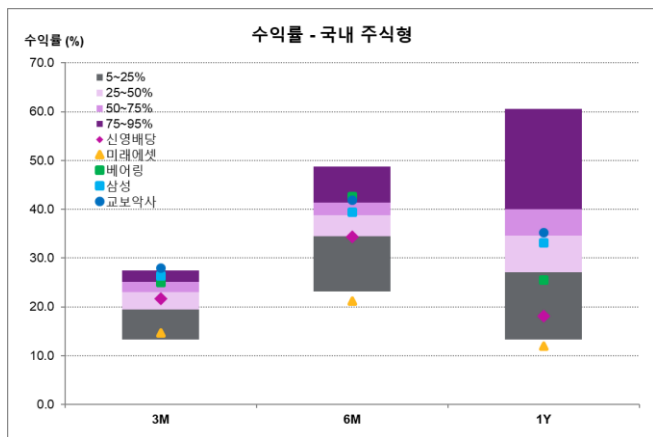
- 운용 자산규모 상위 5개 펀드의 자산규모는 2분기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미래에셋 퇴직플랜40 펀드가 5위로 신규 진입함.
- KB를 제외한 4개의 펀드 모두 하반기에 두자릿 수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이는 2020년 하반기 반도체 대형수출주와 인터넷 등 언택트 수혜주 등의 강한 랠리에 기인함.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주식형 (2020년 12월말 기준)

Figure 06. 퇴직연금 - 국내 주식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							
상위 5%	22	27.46	48.71	60.54	32.12	14.08	12.19
상위 25%	4	25.15	41.38	39.99	23.64	8.40	10.19
중앙값	0.5	23.02	38.74	34.64	20.48	6.51	8.02
하위 25%	0.1	19.39	34.53	27.05	16.18	4.13	5.40
하위 5%	0.0	13.25	23.15	13.30	8.51	-1.08	1.86
총 데이터의 수(개)	357	315	298	274	252	180	70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투자신탁(주식)C형	197	21.73	34.30	18.16	10.83	1.91	5.20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중류C	164	14.60	21.23	11.95	10.40	2.24	5.36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ClassC-P2	92	24.97	42.57	25.48	18.21	5.56	-
삼성퇴직연금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C	74	26.40	39.36	33.12	22.72	7.77	11.55
교보약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C-Pe	65	27.95	41.80	35.22	24.31	8.67	-



펀드 유형

- 2020년 1분기 COVID19로 인한 하락을 딛고 하반기 강한 유동성 랠리에 힘입어 국내 주식형 펀드들의 (중앙값 기준) 연간 수익률은 35%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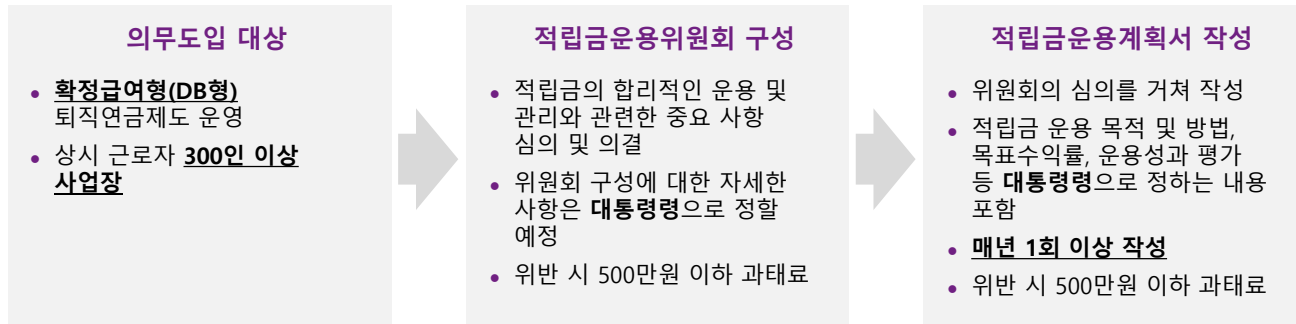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운용 자산규모 기준 상위 5개 펀드의 자산규모는 2분기에 비해 증가하였고, 인덱스 펀드인 교보약사펀드가 5위로 신규 진입하였음.
- 상위 3개 펀드가 모두 배당주식형 펀드인 것도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인덱스 펀드인 삼성펀드와 교보약사 펀드가 1년, 2년 구간에서 나머지 펀드들에 비해 우수한 수익률 기록함.
- 유사한 배당스타일의 펀드들 간에도 1년, 2년 수익률이 2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국회 소위 의결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07)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및 의결이 완료됨. 3~4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 보고서를 통해 주요 의결내용 및 추후 논의될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의무화



DB형 퇴직연금제도 최소 적립 기준 강화

항 목	현 행	개정안
법정 최소적립금의 95%에 달하지 못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및 3년간 보존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 통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좌 동
재정안정화 계획서에 따라 적립금 부족 해결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규정 없음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설정 가능(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신하여 운용관리, 자산관리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 부담금, 수수료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을 일부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교육 위탁 기관 확대

- **사용자는 가입자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 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 형식적인 교육방식 탈피, 가입자의 관심 증대 꾀하는 사용자는 전문교육기관 위탁 고려해볼 수 있음

Disclaimer

This document was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 substitute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In particular, its contents are not intended by Willis Towers Watson to be construed as the provision of investment, legal,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any kind, or to form the basis of any decision to do or to refrain from doing anything. As such, this document should not be relied upon for investment or other financial decisions and no such decisions should be taken on the basis of its contents without seeking specific advice.

This document is based on information available to Willis Towers Watson at the date of issue, and takes no account of subsequent developments after that date. In addition, past performance is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In producing this document Willis Towers Watson has relied upon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certain data and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rd parties. This document may not be reproduced or distributed to any other party, whether in whole or in part, without Willis Towers Watson's prior written permission, except as may be required by law. In the absence of its express written permission to the contrary, Willis Towers Watson and its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accept no responsibility and will not be liable for any consequences howsoever arising from any use of or reliance on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including any opinions expressed herein.

Copyright © 2021 Willis Towers Watson. All rights reserved.

About Willis Towers Watson

Willis Towers Watson (NASDAQ: WLTW) is a leading global advisory, broking and solutions company that helps clients around the world turn risk into a path for growth. With roots dating to 1828, Willis Towers Watson has 40,000 employees serving more than 140 countries. We design and deliver solutions that manage risk, optimize benefits, cultivate talent, and expand the power of capital to protect and strengthen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Our unique perspective allows us to see the critical intersections between talent, assets and ideas – the dynamic formula that drives business performance. Together, we unlock potential. Learn more at willistowerswatson.com.

Contact Details

신윤현, CFA, FRM, CAIA
Head of Investments, Korea

+82.2.3430.2550

Andrew.shin@willistowerswatson.com

안정선, FSA, FIAK
Head of Retirement, Korea

+82.2.3430.2561

Chongson.an@willistowerswatson.com